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¹, 예방의학교실⁴,
간호대학 성인간호학교실², 세브란스호스피스³

이창걸^{1,3} · 이원희² · 이미라² · 김영진² · 이경옥³
김옥겸³ · 김영순³ · 김인혜³ · 원영희³ · 김미정³ · 남정모⁴

목 적

호스피스 환자에게 Twycross의 총체적 통증 모델(total pain model)을 적용하여 통증 양상과 호스피스 돌봄이 통증 경감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세브란스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제공받은 환자 385명중 최소 2주 이상 돌봄을 제공받은 174명을 대상으로 차트분석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육체적 통증은 VAS 척도를 사용하였고 사회심리적, 영적 고통에 대한 분석은 Twycross가 제시했던 우울, 분노, 불안에 관련된 인자들을 점수화하여 사정하였다. 호스피스 중재 전과 중재 후 2주째 다시 통증 평가 및 진통제 복용의 양상을 비교하여 호스피스 돌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paired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호스피스 돌봄으로 인한 통증 경감에 미치는 요인 분석은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결 과

환자의 특성에서 나이는 17~96세로 중앙값 56세였

고 남녀비가 4.6:5.4이었다. 암의 유형별로는 폐암(19.5%)로 가장 많았고 위암(13.8%), 대장암(13.8%), 유방암(0.8%)순이었다. 환자들의 종교는 기독교(61%), 불교(13%), 천주교(10%)순이었고 경제적 상태는 저소득층이 42%, 극빈자가 15%로 가난한 환자들이 호스피스의 돌봄을 주로 받고 있었다. 육체적 통증을 유형별로 보면 체성이 56%, 내장성 34%,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이 22%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의뢰 당시 VAS에 의한 육체적 통증의 평균치가 5.1인데 비해 호스피스 돌봄 2주째는 2.7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01$). 호스피스 돌봄 2주째는 WHO 통증지침에 따른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정신사회적 고통을 분석하였을 때, 우울의 원인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59%), 체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점(55%),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없어지는 것(48%)순이었고, 분노의 원인으로서는 치료에 대한 실패(31%),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음(22%) 등이었고, 불안의 원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47%), 죽음에 대한 공포(42%), 통증에 대한 공포(41%)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돌봄을 받음으로써 통증 조절에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우울이 통계적 유의성($P=0.06$)에 가장 근접한 인자로 나타났다.

결 론

말기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갖고 있었고 Twycross의 총체적

통증의 모델은 환자의 통증 평가에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은 호스피스 돌봄 2주째에 경감되어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고 호스피스 돌봄

을 통한 고통 경감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우울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